

잠시 침묵하던 노자는 이윽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새의 운명은 자네 손에 달려 있네.”

자신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참리한 외부 조건이나 과거의 그늘 탓으로 돌리며 불행해하는 이들을 고목 아래 앉아 있는 저 현명한 노자에게 데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노자라면 끊임없이 그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그려한 사람들은 마냥 낭비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 삶에 난개를 달아줄 것인가, 아니면 끝없이 추락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는 오로지 그들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

제8의숙 | 문제 아동에게 ‘Yes’ 선물하기

연론 매체들이 오래전부터 전문가 인터뷰를 끌어들이며 다뤄온 사회 문제가 하나 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그것이다. 20세기 후반 무렵 등장한 이 현상은 점점 더 일반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잡아왔다.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3분의 1이 학생들 간 싸움에서 비롯된다. 상급 학생들이 자신보다 어리거나 약한 학생들을 때리거나 함키거나 묶어뜯고, 심지어는 자전거 체인으로 채찍질한 일도 있었다. 특인 내에서만 해도 해마다 40만 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한다. 공식적인 통계만 해도 그렇고, 그나마도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학부모들은 이 일을 자신이 부족한 교사를 탓으로 돌리기 일쑤며, 이에 맞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난폭함이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며 부모들을 비난한다.

문제를 풀 수 있게 서로 격려하기보다 상호 비방을 일삼는 태도는 학교 교육을 하는 교사나 가정교육을 맡은 부모 모두를 맥 빠지게 만든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끊임없이 다루며 책임을

전하기보다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감싸주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다. 문제아들의 일반 행위는 확실히 꾸짖는 한편, 아이들의 존재 자체는 조건 없이 감싸줘야 한다. 소위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전략이 수없이 고안되고 또 도입되었지만 대부분은 극히 미비한 성과만을 거두었을 뿐이다. 일반 행동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일관성 있는 태도, 세대 간의 적극적인 협조, 창의력 개발과 그를 강화시킬 훈련 프로그램 등은 여기서 언제나 화두로 등장했다.

그러나 어떤 교육전략이든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었다. 예전대 권위적인 교육방식을 고수하는 베를린의 한 유치원에서 일한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날마다 툭말스러운 투로 “선생님, 오직 우리만 하고 싶은 놀이를 해야만 하나요?”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다. 그 교육방식을 고안한 사람이 이런 효과를 기대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원가를 전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적할 수 있다.

고트프리트 헤링거는 이미 그의 저서 『두개의 하인리히(Der Junge Heinrich)』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제나 거창하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결코 현명해질 수 없음은 나는 깨달았다. 자기 말만 하고 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남의 지혜를 배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현명한 말인가! 자신에게 말지진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간접적으로, 신중하게 아이들을 이끌게 된다. 이런 사람의 지도를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알맹이를 발견하고

그것에 신뢰를 갖는다. 나아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쉽게 스스로를 통제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밑바닥 반죽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자의 책무 역시 원하는 유전인자를 재료삼아 반죽에 넣고 원하는 형태로 빚어서 오전에 구워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각각의 아동은 독특한 한 개인으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이들 각각에게서는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행동이 탄생한다. 아이들과 교육자 간 상호 스트레스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로잔 선사는 설법이라곤 하지 않았으며 남을 꾸짖는 일도 없었다. 하루는 그의 동생이 찾아와 자신의 집에 잠시 들러줄 것을 부탁했다. 거친 행동은 하는 아들을 말대답이라는 것이었다. 선사는 선선히 따라갔지만 조카에게 한 마디 호계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대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선사는 잔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의 방채에 앉아 쫄신 끈을 매주던 조카는 문득 머리 위로 따뜻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로잔 선사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선사는 말없이 길을 떠났고, 소년은 골장 바른 행동기지를 되찾았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공격적인 태도에 대항하는 최선의 무기는 다음 아년 ‘자비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의 태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다. 사람은 당연히 거친 일탈 행동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그저 멀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거리를 두는 동시에 관찰함을 유지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

듯이 아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향해서는 확고히 '아니오!'를, 아이들의 존재를 향해서는 너그럽게 '예!'를 주라는 것이다. 이때 교사나 부모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함을 항상 기억하라.

"요즘 젊은 애들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도통 볼 수가 없어!"

지하철을 탄 어느 중년 남성이 두덜거렸다. 옆에서 그 말을 들은 한 승객이 물었다.

"천생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뭐가 그리 꼴만하시오?"

"그건 그렇지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벌써 30분째 서서 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현대사회에 만연한 부정적 행동양태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통해 서만 개선될 수 있다. 윤리적 행동방식이 자리 잡느냐 마느냐도 어른들에게 달려 있다. 그와 동시에 요구되는 것은 후대를 향한 선대의 굳건한 신뢰다. 호습감스러운 문계치나 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만 들고 젊은 세대에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침담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짓밟혀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쓸라운 사례를 두 건 소개한다.

사례 1

어느 여성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은 부모님이 낳은 둘째아이이며, 첫째는 그녀보다 일 년 남짓 먼저

태어났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사연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이러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부모님이 첫아이를 잃고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만큼, 자신이 태어났을 때 기쁨도 그만큼 컸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젠가 가족 주치의와 나는 대화로 인해 상황은 뒤집혀버렸다. 먼저 사망한 형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의사는 무심코 그녀에게, 아마도 부모가 그녀에게 쏟고 있는 정성은 먼저 죽은 아이를 위한 것이며 부모의 의식 속에 그녀는 단순히 대리됨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은 몇 십 년이 지나도록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녀는 부모와 평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 얼마나 쓸데없는 (그리고 비상식적인) 설명인가! 의사의 말 한 마디가 그녀의 삶을 동떨어 불행에 빠뜨린 셈이다.

사례 2

어느 의사를 만나기 위해 한 신경정신과 병동에 들렀을 때, 나는 우연히 황당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병동의 수석 의사가 몇 주 전부터 입원해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기분이 어머냐고 묻는 참이었다. 환자는 지난 주말 아침 잠에서 깨어 별안간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만 빼면 그럭저럭 괜찮다고 대답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먼저 깨어 밖에 나가고 있던 때 눈을 뜨는 바람에, 텅 빈 방에 혼자 유기되었다는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때 갑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오더라고 환자는 덧붙였다. 그러자 그는 옆에 있던 부

수석 여의사에게 이러한 공포가 과다한 알코올 섭취의 부작용인지 물었다. 여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은 지 오래거든요. 환자가 워낙 불안정하게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대답을 들은 수석 의사 역시 ‘아, 그래요?’라고 무심히 대꾸하더니 곧바로 다음 환자에게 가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희한한 광경이란 말인가! 회복기에 있는 환자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을 때의 기분이 어떨겠는가? 여기에 더해 ‘아, 그래요?’라는 수석 의사의 대답은 경멸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환자의 자기신뢰감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것이며, 알코올 중독과의 힘겨운 싸움도 견디기 힘들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판단력마저 손상될 경우 그가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있던) 미래와 맞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어야 할단 말인가?

이 일화의 교훈을 교육학에 대입하면 ‘믿음을 깎아내리는 교육전략은 절대 금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너는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혹은 너는 거서 뭐가 되려고 그 모양이니? 따위의 언사는 아이들을 강요된 무력감(마틴 켈러만 인용)에 빠뜨린다. 이때쯤 되면 아이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모난’이라는 예명으로 잘 알려진 어느 영화배우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치해 모진 노력을 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

